

땅의 속삭임



고영민

1

나는 손전화기를 꺼내어 신호를 보냈다.

《지금 찾고있는 가입자는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벌써 다섯번째로 찾는다.

나의 눈길은 시내로 곧추 뻗어나간 도로의 끝점을 주시했다.

아마 사람들은 청년분조장인 내가 가을걷이전투로 드바쁜 이 계절에 할일이 없이 서성거리는것을 본다면 걸음을 멈추고 물을것이다.

《거기서 뭘하나? 오- 처녀를 기다리는가보군.》

그러면 나는 《무슨 소리를 합니까? 도면이 온다고 해서 나왔는데.》 하며 부러 정색한 표정을 지어보인다.

어차피 상대방은 《 피장파장이군. 뽕도 따구 님도 보고...》 하고는 《그럼 수고하게.》하며 갈길을 갈것이다.

나는 피식 웃었다.

생각해보니 저절로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한동안 그렇게 서서히 목아프게 눈뿌리를 뿔뿔 나는 누군가 찾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우리 작업반 반장이었다.

《명호, 여기서 뭘하나? 분조장이라는게...》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섰다. 나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정작 사업에 들어가서는 언제나 《청년분조장》이라고 불러주는 우리 반장이다. 그는 내가 대답하지 않고 웅색해하자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련회를 기다리는가보군. 한시도 못 보면 안되겠던 모양이지?》

《반장동지도... 도면이 궁금해서 나왔는데.》

《까짓거,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좀 좋나?》

나는 웃고말았다. 반장의 말이 방금 내가 생각했던것과 꼭 들어맞았던것이다. 나에게 그럴듯 정확한 추리능력이 있다는것이 사뭇 놀라왔다.

《똑똑한 처녀야, 그런 처녀라면 따라다닐만도 하지. 안 그래?》

《허헛참, 반장동지도...》

나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한단 말인가?

반장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자전거에 올라앉았다.

《그럼 함께 들어오게, 난 먼저 가겠어.》

《조심하십시오.》

자전거가 기우뚱거리며 멀어졌다.

나는 반장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우리 반장으로 말하면 50대 중엽의 경험이 풍부하고 로련한 초급일군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그의 사업능력을 평가할 때면 어떻게 되어 작업반장밖에 못하는가고 아쉬워했다.

천천히 돌아서던 나의 눈길은 그루터기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강녕이밭으로 날아가 멎었다.

땅! 이것은 농민에게 있어서 단순히 생산수단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그러는데 누구나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제 그랬지만 오늘도 그 땅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나의 뇌리에는 몇달전의 일들이 서서히 안겨들었다.

×

6월의 탁하고 습한 바람이 강녕이밭을 느릿느릿 기여다니며 김매기에 치친 청년분조원들의 미움을 샀다. 하지만 어쩔수 없었다.

이맘때면 늘 괴롭히는 무더위이니...

우리는 비물흐르듯 하는 땀줄기를 팔굽으로 연신 훔치며 발이랑을 누벼나갔다.

뜨거운 태양은 어느새 우리의 머리우에서 조롱하듯 내려다보고있었다.

분조원들도 지쳤는지 도무지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그때 런희가 영남을 힐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남동무, 이젠 뭐예요?》

《예?》

《김매기는 흠매기라는데…》

런희의 가벼운 나무람에 발이랑을 돌아보던 영남이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은듯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여기 덕지포전에서는 김도 맥을 못 취요, 이제 장마만 나보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야 어디 주인다운 일본새예요?》

런희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영남이도 자기의 견해를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이 덕지포전에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주인은 무슨 주인…》

나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그들사이에 끼여들었다. 이랑우에 돌아난 큰 풀이나 매고 고랑의 김은 그대로 있었다.

영남의 덜퉁한 일본새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영남이, 정말 이렇게 일하겠어?》

《…》

그는 마지못해 돌아서서 호미질을 시작했다.

아마도 나의 목소리가 어지간히 높았던것 같다.

그러나 그는 몇발차국 못 가서 인차 풀썩 발이랑에 주저앉고말았다.

《분조장동지, 이젠 그만하자요. 배가 고파서 어디…》

《벌써 배가 고파요? 내 간식까지 말끔히 털어먹고도…》

아부재기를 치는 영남에게 누군가가 툭을 주었다.

허나 그쯤한것에 주눅이 들 그가 아니었다.

《그까짓 강냉이튀기 몇알 먹은걸 가지구…》

나는 그의 푸념소리에 다시금 일손을 멈추었다.

영남이는 발고랑에 주저앉아 비웃는듯 한 해를 떨거니 바라보고있었다.

《당지는 제일 크게 언제봐야 먼저 일어선단 말이야.》

《꼭지 무른 감 먼저 떨어진다구 나야 체통이 남보다 크지 않습니까.》

영남이 배를 어루쓸며 비위중계 한마디 하자 《와하—》 웃음이 터졌다.

나도 어처구니 없어 웃고말았다.

《어서 마저 해요. 점심시간이 다된것 같은데…》

영남은 런희의 권고에 마지못해 엉치를 털고 일어나며 길게 한마디 뿔었다.

《에—에, 이 덕지포전은 우리 분조장만큼 쓸쓸하겠

어. 누가 돌봐주는이 없으니 이렇게 김만 무성하지.》

《뭇야!》

나는 불끈 속이 치밀었다.

영남은 우로 쳐들린 나의 눈과 마주치자 까투리처럼 한뼘이 되나마나한 강냉이포기에 머리를 틀어박았다. 여기저기서 억지로 웃음을 참느라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읍쪽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그만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무슨 성격이 저런지…》

영남은 목을 빼며 런희의 팔을 툭 쳤다.

나는 다시금 속이 뒤물렀지만 꼭 참고말았다. 가법게 그를 나무라는 말소리가 나의 마음을 다소나마 녹애했던것이다.

《힘들기야 모두 같지요. 그런데 유독 동무가 그렇게 나오니 분조장동지립장이 어떠했겠어요, 아나라도 그럴거예요.》

런희가 고마왔다. 지내볼수록 그는 호감이 가는 처녀였다.

분조원들은 내가 발머리에 나서는것을 보고서야 걸음을 옮겼다.

나도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라섰다.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모두가 웃고 떠들었다.

힘들고 지쳤어도 라천적으로 사는데 습관된 청년들인것이다. 그래서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정서와 랑만이 있다고 하는지…

그속에서 유포하게 눈에 띄우는것은 역시 허우대가 큰 영남이었다.

그는 손세까지 써가며 무엇인가 열성스럽게 이야기한다.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방금 들은 말이 귀전에 들려왔다.

《에—에, 이 덕지포전은 우리 분조장만큼 쓸쓸하겠어. 누가 돌봐주는이 없으니 이렇게 김만 무성하지.》

만일 누군가가 이 말을 들었다면 내가 아직 총각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것이다. 나는 나이가 서른이 다돼오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 아니, 못 갔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때문에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가 지청구를 하며 성화를 먹었다.

《에그— 어떤 처녀가 오겠는지…》

《어머니두 참… 아무럼 장가 못 가겠어요?》

《네 나이 지금 몇살인지 아니?》

《걱정마세요. 아무럼 장가 못 가겠어요? 걱정마세요. 이답에 어머니맘에 꼭 드는 처녀를 데려올테니.》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흰소리를 뿔군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모르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구…》하고 한숨을 쉬고는 《언제면 이 집에 착실한 새 주인이 들어오겠는지.》하며 저녁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나가군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영남의 말에서 가책을 느끼는것은 덕지포전때문이었다.

포전은 말 그대로 분조의 골치거리였다.

초기 작황이 좋다가도 일단 장마가 나면 물에 잠기는 지대였다.

그후에 물이 줄면 감탕이 한뼘이 실히 되게 쌓이곤 하였다.

바로 이때문에 덕지포전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반장까지도 포전에 덕지가 앉은만큼 자기의 가슴에 덕지가 앉았다고 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포전을 버리지 못하는것은 지력이 더할나위없이 좋을뿐아니라 물만 나지 않으면 높은 수확고를 낼수 있기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작업반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고 포전의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돌격대대장으로 작업반의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였던 내가 선출되었다. 나는 돌격대앞에 제기된 과업을 2달동안에 끝내겠다고 결의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공사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우리는 한달이십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내었다. 그 나날에 나의 사업능력도 검증되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표창도 받았고 후에는 분조장으로 선출되었다. 우리 분조로 말하면 덕지포전공사를 맡아 진행한 청년돌격대를 모체로 하여 조직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포전이 나를 괴롭히는 골치거리로 뒤흔어야...
공사를 끝내면 일없을줄 알았던 포전이 분조장으로 선출된 다음해 큰물로 또다시 물에 잠겼던 것이다.

더우기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모든 포전마다에는 주인들이 생겼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포전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해마다 큰물피해를 입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해본적이 없는 땅이어서 나로서도 선뜻 그 포전을 나누어줄수 없었다.

그로부터 내가 찾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것이 분조에서 공동으로 포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결국 여기 덕지포전만이 주인이 없는 포전이 되고만 것이다.

정말 덕지포전은 분조의 골치거리인 동시에 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우리는 작업반마당으로 들어섰다.

2

《3분조장, 아침에 매던건 다 끝냈는지?》

반장이 작업반정문으로 들어서서는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직 다...》

《야단났군. 요즘 도에서 검열을 다닌다는데...》

한동안 말없이 서있던 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이었다.

《오후에는 자기 담당포전들에 나가 김을 때도 록 하게. 특히 도로주변의 김을 말끔히 밀어버리라구. 결불 안이라구 뭐니뭐니해도 발머리가 깨끗해야 해.》

《그럼 덕지포전은?...》

《별수 있나?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하지...》

《계속 그렇게 이북자식 대하듯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진 어디까지나 형식주의가 아닙니까?》

반장은 짜증이 나는듯 《이렇게도 답답하다구야, 그러니 아직 장가두 못 갔지.》 하고는 뒤를 이었다.

《만일 제기되어보라구. 내가 옥을 먹는건 별문제야. 일이 안되면 관리위원장이 군에서 옥먹구 또 군경영위원장은... 됐네. 더 다른 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대로 하게.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야.》

나는 어쩔수없이 그 지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반장의 짜증섞인 (물론 악의는 없지만) 장가소리는 접수되지 않았다.

《빨리 마련을 보고말아야지.》

《자네같은 사람들 보고 왜 미혼자라고 하는지 알아? 아직 어른이 못됐단 소리야.》

반장은 나의 이마를 꼭 밀어붙이며 핀잔조로 일렀다.

나는 허허 웃고말았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로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오후에 나는 작업조직을 다시 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조장사업을 갖 시작한 나로서는 무척 따분한 일이었다. 하기는 사업절차가 그렇게 되어있는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속스러웠지만 어쩔수 없었다.

《오후에는 모두 자기가 담당한 포전에 나가야겠소.》

《그럼 덕지포전은 어떻게 합니까?》

영남이 작지 않은 영치를 들었다놓았다.

언제봐야 간지러운 곳을 먼저 긁어주는 격이다.

그래서 키가 크면 싱겁다고 하는지.

영남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마 내 표정이 어지간히 이지러졌던 것 같다.

《후에 시간을 내야지.》

《이진 언제봐야 이렇다니까.》

누군가 한 말에 분조는 돌이 던져진 물면처럼 설렁거렸다.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졌다. 얼굴은 금시 구워낸 가재처럼 벌개졌다. 그때 누군가의 광량한 목소리가 울렸다.

《덕지포전엔 제가 나가겠어요.》

《런회동무가?》

《저야 아직 담당한 포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때 그가 나서주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아마 런회가 아니었다면 목소리를 높이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 구구히 설명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구요. 저녁총화는 이 자리에서

하겠소.》

작업조직이 끝나자 모두 담당한 포전으로 나갔다.

나도 내가 담당한 포전으로 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밭고랑사이를 슬슬 넘나들던 무더위도 스러져가고 저녁이 거의 될무렵 나는 포전에서 손을 털고 일어났다. 분조의 포전을 돌아보아야 했던것이다. 먼저 영남이가 담당한 포전에 들어서니 그는 밭머리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다 끝냈소?》

나는 밭을 둘러보았다.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일감이 차레지면 무섭게 해치우는 그라 일한 솜씨가 마음에 들었다.

《제 일은 이렇게 알심있게 하면서도 공동일을 하는걸 보면...》

내가 이마를 밀어붙이며 하는 말에 그는 《아야.》 하며 곱지 않은 눈길을 던졌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앉아있던 영남은 덤덤한 눈길로 덕지포전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런회동지한테 가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런회한테?》

《혼자서 그걸 다하자면 힘에 부치겠는데...》

나의 마음은 이상해졌다. 요즘은 왜서인지 그의 이름만 나오면 별스러워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는 영치를 털고 일어섰다.

《덕지포전으로 나오라구.》

《알았습니다.》

나는 덕지포전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소복하게 자란 풀들이 밭목을 치는 끈게 뻗어나간 동쪽길을 따라 걷느라니 한마리의 노랑나비가 눈에 띄었다. 그놈은 제방우에 소담하게 피어난 민들레꽃의 주위를 맴돌며 팔랑이 고있었다.

문득 런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피복공장에서 일하다가 농장으로 자원진출한 제대군인처럼였다.

요즘에 와서 나는 그와 마주서면 까닭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즐거워지곤 했다. 이것은 우연히 읍에서 함께 들어오며 많은 말을 나눈 때부터 생겨난 감정이었다. 그때 나는 원경대학강의로 군에 갔었고 런회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시내의 상점에 갔었다.

우리는 그날 많은 말을 하였다, 지어는 하찮은 사말사까지도. ...

이제 포전으로 가면 가물에 단비온듯 몹시 기뻐할것을 생각하니 나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포전에 이른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런회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어디 갔을가?》

포전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런회동무!》하고 소리치며 아침에 매던 밭고랑에 들어섰다. 두이랑이 되게 김을 잡은것의에는 아직도 채 매지 못한 이랑을 보는 순간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정이 있을수 있지 않을가, 그도 처녀가 아닌가.

나는 주저없이 채 매지 못한 이랑을 타고앉았다.

한이랑을 끝내고 돌아설 때였다.

《수고합니다.》

《영남동무요?》

《런회동진 어디 갔습니까? 에스키모를 가지러 보낸 건 아니겠지요?》

영남은 희뻑게 늘어붙으면서 너스레를 쳤다.

이렇게도 싱겁다구야. ...

나는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모르겠어.》

《모르다니요?》

영남은 의아해서 쳐다본다. 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것 같은 그의 눈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욕- 속이 치밀어올랐다.

《뭘 멍청해서 그래? 빨리 김이나 매!》

《팔한테서 통을 맞추선 애매한 며느리한테 뻔뻔 이한다구 괜히 나보구만...》

영남은 까닭모를 욕을 먹은것이 억울한지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분풀이하듯 불이 나게 호미날을 휘둘러댔다. 그때마다 먼지가 매운재마냥 폴폴 날리고 그 서슬에 풀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앞서나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영남이에게는 사실 부모가 없었다.

그의 부모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다가 밭머리를 베고 순직한 사람들인것이다.

그래서 나는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로서, 후에는 분조장으로서 영남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근히 대해주었다.

그것이 내가 부모가 없는 그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것이다.

진심은 마음의 문을 연다.

영남이도 나를 친형처럼 따랐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자연 허물없는 사이로 되었다. 아마도 그때문에 화를 내었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

《알게 됩니까?》

영남의 껍질한 푸대접에 멧해진 나는 다시 일손을 잡았다.

잔등은 순간에 물범벅이 되고말았다.

어느새 저녁해가 서산으로 녹아들자 땅거미가 깃을 치며 더위에 달아오른 포전에 내려앉았고 별들도 하나 둘 장막을 드리운 하늘가에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나 런회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합시다. 아무래도 끝내지 못할건 뻔한데...》

영남은 맥이 진했는지 될대로 되라는듯 영치를 털고 일어났다.

《난 들어가겠습니다. 농사야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손땀을 놓고 도로쪽을 바라보았다. 저도 모르게 긴숨이 나왔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지…

나도 천천히 영남의 뒤를 따라섰다.

《내 생각엔 그가 농사일할 녀자같진 않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영남의 말이 어쩐지 귀에 거슬렸다.

그는련희의 행동에 어지간히 속이 뒤뜰린것 같았다.

《아무래도 처녀가 좀… 오전의 일도 그렇지요. 제가 나설 일도 아닌데 잘가닥거리며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이… 그리고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김을 매다간 시집을 가기 전에 파파늬은 할머니가 되겠다.) 고 아우성치며 한다는 소리가 살초제가 어떻다느니, 과학방법이 어떻다느니, 역설을 해대는데…》

《그만해!》

《보아하니 목적이 있어서 농장에 진출한것 같은데… 생각해보십시오. 도시에서 양산쓰고 멋이나 부릴 처녀가 뭇때문에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겠는가 말입니다.》

《영남이!》

《예?》

《너 몇살이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같이…》

그의 입은 항 벌어졌다. 걸음을 멈추고 멍청해서 두눈만 머룩거리기뿐이었다.

나는 왜서인지 련희에 대해 험담을 하는것이 기분나빴다.

사실 내가 련희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것은 그의 인간됨을 알게 되었기때문이었다.

천진하다고까지 생각되는 솔직성과 그와 반대로 다기차면서도 녀성적인 발랄한 성미가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할가…

언제인가 나는 읍에 갔던 길에 우연히 그를 만나 작업반까지 함께 들어온적이 있었다.

나란히 걷던 나는 무안하여 《어떻게 되어 농촌에 진출하게 되었는가?》하고 물었다.

련희의 말은 전혀 뜻밖이었다.

그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찰떡을 먹고싶어서요.》하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나도 웃고 련희도 웃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처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전 아이때 찰떡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찰떡을 해달라고 조르곤 했지요. 그러니까 (이다음 우리 련희 농장총각에게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부쩍 동한지라 뒤말을 재촉하였다.

《그래서?》

《난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막— 응석을 부렸어요. <싫어, 난 농장에 시집 안 갈래.> 하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는것이였어요.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뻘은 고사하고 몇달동안 잠곡밥만 먹었어요.》

나는 처녀의 얼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무한히 소박하고 진실한 처녀라는 믿음과 함께 마음이 이상해졌다.

나와 눈길을 마주친 그는 얼굴을 활짝 붉혔다.

《그래, 할머니는 왜 그랬대요?》

나는 다시금 물었다. 그러나 그는 《됐어요. 그만해요. 이러다가는 늙어지겠어요.》하며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후 련희만 보면 뭔가 도와주고싶었고 본래 우물쭈머리기 잘하는 나의 성미도 될수록이면 자중하려고 애쓰곤 했다.

그날 그에게서 받은 인상이 상당히 깊었던것이다.

나는 작업반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련희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도 없었다.

어디 갔을가. 무슨 일이 있을가?

나는 그 의문을 풀려고 머리를 짜냈다.

그러다보니 하루작업총화도 어떻게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련희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3

여름날의 밤은 짧기도 했다. 잠자리에 누워 몇분 뒤채이지 않았는데 벌써 날이 흰히 밝아왔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아침을 먹고 가라는 어머니의 권고도 마다하고 작업반으로 나갔다.

길옆에 심은 가로수들과 코스모스들, 그너머 포진들마다에는 아침이슬이 함초롬히 맺혀 햇빛을 받아 령롱하게 반짝인다.

맑고 청신하며 상쾌한 날이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기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밝지 못했다.

어제저녁에 있던 일로 하여 온밤 잠들수 없었던것이다.

잠을 설친때문인지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다.

이런걸 두고 스트레스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던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가보고싶었지만 처녀들이 사는 합숙으로 자정이 지난 밤시간에 찾아다닌다는것이 어쩐지 쑥스러워 포기하고말았었다.

합숙에 이른 나는 련희가 거처하는 방앞에서 잠시 망설이었다.

때마침 영남이가 세면수건을 목에 걸고 합숙에서 나왔다.

《련희동무가 들어왔소?》

《아마 있을겁니다.》

나는 조심히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섰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처녀의 아늑한 생활의 울타리안에 들어선 나는 멍청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느 구석에나 처녀의 성미와 고상한 취미가 엿보였다.

그것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던 나는 주인없는 방에 더우기 처녀의 방에 홀로 있다는것을 깨닫고 나오려는 순간 찻침 놀라며 굳어졌다. 책상우에 놓여있는 손전화기에서 호출음이 울렸던것이다.

편희의 손전화기였다. 무엇인가 주저하게 하는 망설임속에도 눈길은 호출음이 울리는 곳에 쏠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도설계연구소?!》

다음순간!

《참, 고상한 취미군요! 처녀의 생활이 그렇게도 흥미가 동하던가요?》

나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내가 왜 이런담…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뜨거워났다. 책상우에 손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오던 나는 세면을 하고 나오는 영남이와 다시 마주쳤다.

《만났습니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영남은 《또 편애하러 갔나?》하며 목에 걸었던 수건을 벗어 털었다. 마음속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서서히 안겨드는 불안을 누르며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제 입으로 말하더군요. 총각을 만나러 갔겠다고… 처녀가 그렇게 오래동안 만날 사람이란게 애인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땀 흘린걸 생각하면…》

《아침부터 실없이…》하며 머리를 돌리던 나는 피퍽 스치는 생각에 영남을 다시금 쳐다보았다.

호출음이 울리던 손전화기에서 보았던 주소가 떠올랐다.

무릎 가슴속에는 그 어떤 배신과 굴욕감이 검은 구름마냥 밀려왔다.

그것은 영남이 말한 짙막한 단순문이 던진 심리적충격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공원에서 웃고 떠드는 한쌍의 편인이 떠올랐다. 나는 쓰겁게 입을 다셨다. 미련한것, 그런것도 모르고…

《명호, 영클하거던.》

《예?!》

《새벽부터 처녀를 찾아다니니 하는 소리야.》

《저야 분조장이 아닙니까.》

나는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반장은 뻔한 소리라는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구실은 좋다.》 하고 시까슬렀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쓰겁게 내뱉었다.

《흥! 녀자들이 다 그갈다면 장갈 가지 않겠습

니다.》

생각없이 통을 맞은 반장은 눈이 등그래졌다.

《에끼— 못난것!》하며 나의 잔등을 철썩 치고 난 반장은 실무적인 어조로 《분조장.》하고 불러놓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결심을 내렸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덕지포전 말이네. 아무래도 비경지로 넘겨야겠소.》

《비경지로요?!》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여불고 말을 이었다.

《사실은 오늘 그 일때문에 손님들이 오네. 여적 그 포전때문에 고생했지? 나도 속상하네. 지난해도 계획을 미달했는데 올해에 또 계획을 못하면 나나 자네나 체면이 서겠나? 그래서 심중하게 생각한 끝에 결심한것이니 그리 알라구.》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기지로나 떼주겠지.》

《예?! 안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구…》

《그 땅이야 주인없는 땅이지. 구실을 못하는 땅이란 말이네.》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단마디로 잘랐다. 도무지 용납할수 없었다. 반장은 채 피우지 못한 담배를 던져버리며 짜증을 냈다.

《그걸 끼고앉아 어쩔셈인가? 국가계획은 나라의 법이야.》

《어쨌든 못하겠습니다.》

나는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반장이 버럭 역증을 내며 어성을 높였다.

《내가 반장인가, 아니면 자넨가? 아침부터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계획은 이 반장이 책임져! 우리가 그 포전때문에 적게 고생했나? 술한 로력과 자금을 들여 제방을 쌓았지만 얻은것이 무엇인가 말일세. 모든 포전들은 착실한 주인들이 생겼는데 그포전은 누구도 말겠다는 사람이 없지? 난 뭐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줄 알아. 그 포전에 감탕덕지가 앓은만큼 이 허덕진의 가슴에 흠덕지가 앓았던 말이야.》

나는 반장이 가슴을 두드리며 하는 사설에 두눈을 꼭 감았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의 말은 어느것 하나 부정할수 없는 명백한 론거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대로 하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될대로 되라는듯 뱀아버리고 붙잡기라도 할가보아 황망히 그의 걸을 빠져나왔다.

그의 사업방법에 의견있던 나로서는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나에게 이렇다할 방안이 있는것은 아니었다.

나의 땀, 나의 진정을 바쳐온 땅을 비경지로 넘기자니 어쩐지 살점을 떼주는 것처럼 마음이 알찌 근했던 것이다.

방축길을 걸던 나는 길가에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까지도 속이 두부장 풀듯 했다.

내앞에는 밤새 피어난 민들레꽃이 잠풍한 여름날의 이 아침이 즐거운듯 제홍에 겨워 그네를 뛰고 있었다. 별스레 한가해보이는 꽃잎을 보니 저절로 긴숨이 나갔다. 아니, 그것은 련정이라는 뜨거운것에서 서러운 미련이라는 더운 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걸탐스럽게 빨아댔다.

그것이 왜 그리도 구수하고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지...

《담배를 무척 좋아하는가보군요?》

머리를 드니 뜻밖에도 련희가 앞에 서있었다.

그는 긴 속눈썹사이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은 멋모르고 피우지만 그 후과는 아주 치명적이지요.》

나는 물끄러미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련희는 나에게 다가서지 못하는것이 마치 담배연기때문인지 손을 휘휘 내저었다. 순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나는 담배를 던져버리고 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 한손에 와락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맥없이 발머리에 던져버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련희는 뜨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수평선의 어느 한점에 눈을 주며 태연해지려고 애썼다.

《건강에 나쁘다는데 끊어야지.》

《흥분한것 같군요.》

《내가?!》

허공에서 두 눈길이 부딪쳤다.

순간 가슴속에는 잔잔한 호수가에 돌을 던졌을 때와도 같은 파문이 일어났다. 처녀의 큰 눈, 순결하고 진실하게 보아왔던 그 눈...

그속에서 나는 보았다. 해벌에 그슬린 발기우러한 얼굴에 실린 질은 그늘, 맑은 눈에 비낀 어두운 그림자...

나는 못 볼것을 본것처럼 머리를 돌려버렸다.

허나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또한번 어리둥절해졌다.

《분조장동지, 덕지포전을 다시 개간하면 안될까요?》

《뭐, 뭐라구?!》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눈길을 들어 그 진실여부를 해명하려고 다시금 물었다.

《이자 뭐라고 했소?》

《덕지포전공사를 다시 하자는거예요.》

《공사를?!》

나는 처녀를 똑똑히 보려고 눈가장자리에 힘을 모았다.

아마도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저도 모르게 오해를 낳는것 같다.

내가 그러했다. 그를 오해하기 시작한것이다.

련희는 나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한듯 말을 이었다.

《그 좋은 땅을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옥답으로 만들수 있겠는데...》

《누군 동무만 못해서 가만있는줄 아오? 괜히 부산을 피우지 말구 시키는 일이나 착실히 하오.》

나는 성미 그대로 더럭 화부터 내었다.

그러나 련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뭐라구요? 시키는 일이나 하라구요? 그래, 분조장동지는 주인없는 저 포전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가시에 찔린듯 흠칫했다.

처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렸으나 그 말에서는 고슴도치와도 같은 범접 못할 기운이 느껴졌다. 조용하게만, 참하다고만 알고있던 처녀의 입에서 가시와도 같은 그런 뾰족한 말마디들이 쏟아져나올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태연하게 빈정거렸다.

《어차피 가야 할텐데 빨리 시집이나 가오. 괜히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말구.》

《예?!》

련희는 강한 모욕감을 느낀듯 빨갱게 얼굴을 붉혔다.

나는 패재를 울렸다. 누가 그랬던가?

처녀들은 소리치는것보다 그렇듯 빈정대는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나 나는 그 말로 하여 패재를 울렸던만큼 강한 모욕감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련희가 꼬집듯 툭 내쏘았던것이다.

《그러지요. 분조장동지에게 시집갈테니 잔치준비나 잘해놓으세요.》

《뭐-라구?! 이건 객기를 부리는거요?》

《아니요. 말장난을 하는거예요.》

련희는 도무지 수그러들지 않았다.

나는 부글거리리는 자신을 다잡으며 뺨기가 풍기는 어조로 내뱉었다.

《중소, 더 말하지 맙시다. 어차피 비경지로 넘길판이니까.》

《...》

나는 말이 끝났다는듯 썩 그앉을 지나쳤다.

그러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가 나의 옷소매를 잡았던것이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덕지포전의 어디인가를 바라보고있었다.

기가 찼다. 세상에 이런 처녀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뭐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걸 놓지 못하겠소?》

나는 더럭 소리치며 옷을 잡아챘다. 그 바람에 작업복단추가 떨어져나갔다. 화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런희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했다.

《이젠 알겠어요. 핏때문에 덕지포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보니 분조장동무도 형식주의에 물젖을대로 물젖었군요.》

《뭐라구?...》

두눈에 힘을 주었다.

허나 런희는 계속 기관총의 런발사격과도 같은 말세례를 쏟아부었다.

《그래요. 나는 동무의 형식주의가 반장동지의 그것보다 더 무섭다고 봐요. 왜? 그것은 새로운 형질의 악성비루스같이 시대의 흐름을 따른 형식주의이기때문이에요.》

《그만하오!》

《아니요, 오늘은 꼭 말해야겠어요. 덕지포전이 그렇게 되는데는 동무의 책임도 없지 않더군요. 난 처음 그것을 부정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똑똑히 알았어요. 포전이 그렇게 된것은 반장동지보다 동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걸 말이에요. 교묘하게 반장동지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나의 가슴은 용암마냥 끓어올랐다.

조용하게만, 참하다고만 알고있던 처녀의 입에서 가시와도 같은 그런 뾰족한 말마디들이 쏟아져나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나는 《그만해!》 하고 소리치며 백양나무등걸을 힘껏 후려쳤다.

어제도 힘있게 쳤는지 백양나무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와 함께 처녀의 가냘픈 몸도 떨어졌다. 힘있게 들어친 주먹이 얼얼해오며 다소나마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농장에 온지 며칠됐다고 혼시야? 왜먹지 않게!》

나는 씹듯이 내뱉고 썩 걸음을 옮겼다.

피롭게 숨을 틀으며 내쳐 걷던 나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한자리에 서있었다.

울고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북받쳐 오르며 가슴을 훑어내리는 예리한 아픔을 느꼈다.

나는 키높이 자란 나무들을 목아프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푸른 하늘가너머로 돌격대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 나무들과 함께 어울려 희미한 표상으로 안겨왔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싸우며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던 우리는 뜻밖의 일에 부닥쳤다. 7자로 휘어든 물꺽을 돌리던 구간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감탕층과 맞다들었던것이다.

즉시 초급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많은 토론들이 있었으나 신통한 방도는 나오지 않았다.

《계속 토론합시다. 이러다간 공사는커녕 농사기 일도 보장 못하겠소.》

반장이 너부죽한 얼굴에 근심을 가득 싣고 침묵을 깨뜨렸다.

여전히 침묵이다. 나는 속이 괴어올랐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나 그놈을 먹어버리겠습니까.》

아무런 타산도 없이 큰소리치는 나에게 반장은 《필로... 맨손으로?》 하며 앉으라고 손을 흔들었다.

《굴착기라도 있었으면...》

《허허참, 그게 뭐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누군가가 하는 소리에 반장은 찹찹 입을 다셨다. 그 바람에 와하— 웃음이 터졌다.

《나도 속상해서 하는 소리웨다.》

생각없이 한마디 했던 그는 얼굴이 벌개서 변명하기에 바빴다.

《이럴 때 설계가라도 있었으면...》

《르발전소에 나갔다는데 어떻게 찾아오겠소.》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렇다고 툭 빼여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공부하는 때면 감탕 한바께뜨라도 퍼내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어딜 가?》

《공사장에...》

《앞게!》

나는 다시 주저앉고말았다.

한동안 좌중을 둘러보던 반장은 결론하듯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합시다. 설계를 수정하기로.》

《안됩니다. 무조건 설계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그가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겠나? 자네 혹시 돌격대일이 몸에 맞아서 그러는건 아니겠지?》

《예?》

나는 강한 모욕감을 느꼈다. 더 뻥치고있을 기운이 나지 않았다.

반장은 이미 결심이 선듯 서둘러 결론해버렸다.

《됐소, 토론한대로 합시다.》

《반장동지!》

나는 애원에 찬 눈길로 반장의 너부죽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눈길을 대하자 피로운듯 긴숨을 틀었다.

《공사야 다음에 또 할수 있지만 농사는 어쩔텐가? 농사는 천하지대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애끓게 장갑만 비틀었다.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것이다.

이것은 양보를 의미했다. 하여 공사는 그것으로 락착을 지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마지막까지 주장을 굽히지 말았어야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더라

면 덕지포전은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구간에서 생겨난 것이다.

근 한주일씩이나 계속되는 장마로 제방의 기초가 내려앉는 것과 함께 균열이 생겨 끝내 뚝을 터쳐버렸던 것이다. 그것으로 나의 모든 공로는 수포로 되고 말았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 주인없는 땅으로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분조장동지.》

영남이가 달려오며 웨치는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는 턱에 닿는 숨을 헐떡거리며 어지간히 잠재우고서야 입을 열었다.

《반장동지가 찾습니다.》

나의 눈길은 다시금 백양나무로 갔다.

가슴속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을 다잡았다.

《영남이, 우린 농장의 주인들이야. 우리 농장을 위해 진심을 바치자구. 까짓거 잘 사람들은 가라지.》

영남이는 내 말의 참뜻을 이해하려는 듯 의미심장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의미있게 웃어보이고는 걸음을 내짚었다.

4

나는 기관총사격과도 같은 귀뚜가운 프락포르의 발동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나며 길가턱으로 물러섰다.

강냉이이삭들을 키높이 올려실은 프락포르가 지축을 울리며 지나갔다. 그우에서 영남이가 손을 저으며 《분조장동지...》하고 소리쳤으나 그 다음말은 동음에 삼키워 들리지 않았다.

웃으며 답례하던 나는 적제함에서 떨어진 강냉이이삭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팔뚝만 한 것이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또다시 도로의 끝점으로 향했다.

《도대체 왜 아직 오지 않는거야. 전화도 받지 않구...》

조급해지는 마음을 누잠하며 길게 목을 뽑았다.

련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프락포르도 어느새 도로의 꼬리로 새어들어갔다.

그와 함께 귀청을 울리던 동음도 아득히 멀어져 갔다.

주위는 또다시 조용해졌다.

그러자 누군가의 속삭임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프락포르의 동음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다시 유심히 귀를 기울여서야 그 속삭임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것인지 정확히 가려들을 수 있었다.

그 속삭임소리와 함께 나의 뇌리에는 덕지포전문제를

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이 서서히 안겨들었다.

작업반에 들어가니 반장이 덕지포전때문에 군에서 내려온 일군과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내가 오기를 기다린듯 말을 시작했다.

심중한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락착을 짓지 못했다. 내가 너무도 완강하게 주장해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반장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안돼요! 그것은 량심을 속이고 땅을 속이는 거예요.》하고 소리치며 련희가 안으로 들어섰다.

뺨밖에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란것은 비단 나나 반장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도 있었다.

《동문 누구요?》

《농장원입니다.》

련희의 행동은 너무도 태연했다.

《무슨 일이요?》

《전 포전을 비정직로 넘길수 없어 찾아왔습니다.》

《반장동무, 어떻게 된거요?》

문기는 반장에게 물었으나 대답은 련희가 했다.

《사실 그 땅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반장동지나 분조장동지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하나 하랍니까?》

련희의 당돌한 행동과 물음에 미소를 보내는 것으로써 승인했다.

그로 하여 나는 나의 량심의 한토막이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직도 나의 귀전에는 그의 말이 쟁쟁히 울려왔다.

《전 어릴 때 찰떡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마다 찰떡을 해달라고 조르곤 했지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노엽힌적이 있었습니다. 찰떡은 좋아하면서도 그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다는 몰랐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아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떡은 고사하고 몇달동안 잠곡밥만 먹었습니다.》

나도 반장도 군의 일군도 처녀의 얼굴에서 눈길을 뺄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었던 것이다.

《저는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어째서 아버지가 나에게 잠곡밥을 먹였는지... 나는 썩 후에 군사복무를 하면서 농촌지원에 나갔다가 들어온 날에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여기 문흥리입니다. 덕지포전도 할머니의 발기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접하고 개간한 땅이구요.》

나의 눈은 저도 모르게 커졌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라구요?...

그의 이야기는 나를 깊은 심연속으로 이끌어갔다.

그때는 모든 농촌들에서 새땅찾기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런희의 할머니도 덕지포전을 개간하여 옥답으로 만들 결심을 하고 농장원들을 쫓아내었다. 그의 제의에 모든 사람들이 떨쳐나섰다.

제방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나날 할머니는 옥화라는 동무와 친했는데 그 처녀는 고향이 경기도라고 했다.

한치의 땅을 지켜 힘겨운 전투를 벌리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폭격에 부모를 잃고 쓰러졌던 그를 후퇴하던 군인들이 업고왔던 것이다. 그후 그는 애육원을 거쳐 중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부모를 잃은 자기를 키워준 당의 사랑에 쌀로써 보답할 열의를 안고 여기 문흥리로 달려나왔던 것이다. 바로 그런 처녀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이 사업에 팔을 걷고 뛰어나왔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정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자로 휘여드는 구간에서 깊이를 대충할수 없는 감탕층과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방을 무너뜨렸다는 그 감탕층이었습니다.》

며칠동안이나 등짐으로 돌을 날라다가 메꾸어도 도무지 자리가 나지 않자 점차 중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구질구질 내리는 비로 작업을 중지하고 비가 멎기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옥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대책을 토론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아 두루 갈만 한 곳을 찾아다니던 할머니는 감탕층의 깊이를 확인하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런희는 손에 들고있던 수건으로 눈굽을 훔쳤다.

목이 메여와 더는 말을 이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때 반장의 거센 목소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적절한 기회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감탕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를 구원할수 없었지요. 바로 그 처녀의 행동에 감동되어 농장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 두달동안에 그 감탕층을 메울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덕지포전은

옥답으로 되었고 매해 계획을 넘쳐수행하는 포전이 되었지요. 그런 포전이 고난의 행군시기 몇백년만에 처음보는 자연재해로 제방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덕지포전은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째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의 일군도 몹시 감심한듯 《반장동무도 그걸 알고있었군요?》하고 묻자 반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옥화라는 녀인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나는 놀랐다.

나뿐이 아니라 런희도 무척 놀란것 같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반장을 바라보다가 방을 뛰쳐나갔다.

심한 자책을 받은 반장은 자기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반장은 자기의 비판을 했다.

아마도 런희에게서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던것 같다.

나는 거기에 더 있을 자격이 없다는것을 알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 나오니 런희가 고개를 돌리며 눈굽을 훔쳤다.

가볍게 어깨를 떠는 그를 보느라니 언젠가 《어떻게 되어 농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하는 물음에 대답하던 그때 보았던 소박하고 진실한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처녀의 얼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무한히 소박하고 진실한 처녀라는 믿음과 함께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때부터 그를 보면 뭔가 도와주고싶었고 그렇게 말을 나누고싶었다.

나는 어깨를 떨고있는 그를 위안하려고 했으나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호미를 찾아들고 덕지포전으로 나갔던것이다.

런희가 매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채 매지 못했던 김을 매지 매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그래야만 다소나마 번거로운 마음이 풀릴것 같았다.

그리고 증명해보이고싶었다.

런정을 품어온 한 처녀에게, 런희에게 나에게도 량심이 있다는것을...

포전에 이른 나는 김을 매기 시작했다.

얼마나 흘렀는지...

《분조장동지.》

머리를 들었다. 런희였다. 나는 다시 김을 매나갔다.

호미날끝의 흙이 풀어번졌다.

나의 마음도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하나 물어도 되겠어요?》

나의 손은 저도 모르게 멈춰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러나 말할수 없었다.

런희도 더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나의 곁에 다가선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에게 덕지포전을 맡겨주지 않겠어요?》

《...》

런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나를 보자 슬며시 속눈썹을 내리깔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마 그도 아침에 있었던 일이 어지간히 속에 맺혔던것 같았다.

《제가 덕지포전을 담당하겠단 말이예요.》

《포전이야 이미 동무가 맡지 않았소.》

내 말을 듣는 순간 런희의 얼굴에는 얇은 웃음발이 어렸다.

나는 그 말로 내가 그에게 하고싶었던 모든 말을 대신하고싶었다.

나의 경솔함과 편협, 지어는 손전화기를 펼쳐보려고 한 유치함까지도...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할게 있는데...》

《뭐요?》

나는 거의 무뚝뚝하게 말했다.

《래일 덕지포전설계를 맡았던 설계가동지가 오는데... 함께 동행해주지 않겠어요?》

《설계가?!》

《예, 많은 제방설계를 해서 소문이 난분이예요.》

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심장은 세차게 높뛰었다.

런희는 조심히 내곁에 와앉으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는 안되었어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방설계도면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나는 넋없이 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적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본것 같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 말없이 발끝으로 흙을 허비던 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전 분조장동지가 영남동무의 신발을

바로 신겼으면 해요. 그들의 부모들이야 농장에서 순직한 애국자들인데 그를 진짜 농장의 주인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나는 무엇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주인, 옳았다. 주인만이 이렇게 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이 포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없었다.

나로서도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덕지포전을 놓고 저울질하다못해 비경지로 넘기려고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다면 진짜주인은 누구였는가?

나는 그 대답을 찾은듯 머리를 들어 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늘가에 붉은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었다. 그 노을은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것은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자연이 가져다준 아름다움이었다.

런희도 피어난 노을처럼 멀리서 볼수는 있어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그것처럼 돋보이는것이였다.

나는 어린 강냉이잎새에서 석양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는 이슬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나에게서 그것이 한갓 물방울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주인만이 흘릴수 있는 진실한 땀으로 보였다.

둘이켜보면 나도 덕지포전에 땀을 바쳐왔다. 포전을 개간하는 공사를 책임지고 침식을 잊어가며 땀을 흘렸다. 아마도 땀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흘린 땀이 더 많을것이다. 하다면 그 땀은 어떤것이였는가?

물론 이 땅을 위해 바치는 땀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아득한 차이를 가져온것은 무엇인지...

《분조장동지, 무엇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는 밀도 끝도 없는 그의 물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가를 날아예던 종달새도, 그에 뒤질세라 구성진 가락을 뿜던 장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포전을 감돌아흐르는 수정천의 물소리만이 소연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무엇인가 속삭이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정천의 맑은 물소리일가?> 하고 다시금 귀를 기울이면 저 유명한 물소리가 꼭 주인을 찾는 땅의 속삭임처럼 들려온단 말이예요.》

나는 찌릿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지는듯 한 충격을 느꼈다.

바로 그것이였다.

땅의 속삭임!

처녀는 바로 진정한 주인을 찾는 땅의 속삭임을 듣고있었던것이다.

나도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어떤 속삭임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귀속말로 조용히 조용히...

그 속삭임소리를 듣노라니 나의 마음도 안정이 찾아온듯 평온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포전에서 떠날줄 몰랐다.

나는 그에게 모든것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미련했던 일까지도…

5

《런희!》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오는 런희를 반기며 달려갔다.

《아이, 명호동지!》

《왜 이렇게 늦었소?》

《시내에 갔던 길에 들릴데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짐이 이렇게 많소?》

나는 짐을 넘겨받으며 물었다. 보통 무겁지 않았나. 그 먼곳에서부터 이 무거운것을 들고 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책이예요.》

《책?! 이 많은걸 뭘 하요?》

《아이참, 명호동지도… 자기가 대학생이라는걸 잊은게 아니예요? 허심하게 배우고 정열적으로 노력해야지요. 만리마시대에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만리마를 타고싶어도 못 탈거예요.》

가슴속에서는 불뭉치같은것이 꿈틀거렸다.

나는 석양빛이 비껴든 처녀의 얼굴을 걱정속에 바라보았다.

동실한 얼굴에 기쁨으로 빛나는 눈, 굵실굵실하게 흘러내린 탐스러운 머리태와 양복깃우로 살짝 드러난 상큼한 목…

불수록 사랑스러웠다.

런희는 나의 눈길과 마주치자 살짝 얼굴을 붉히며 생각난듯 물었다.

《참, 오래 기다렸어요?》

《한시간정도…》

《도제요?》

《뭐?!》

나는 우뚝 멈춰섰다.

런희는 피끗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금 물었다.

《무엇때문에 나를 기다렸어요?》

《무엇때문이라니? 그야…》

나는 더욱 어리둥절하여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도면때문이지…》

《정말?》

《그리구 또…》

나의 말소리는 저도 모르게 안으로 찾아들었다.

무엇이라고 말한단 말인가?

런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까부장하니 휘어든 속눈섭을 치켜올리며 《난 또 나를 기다린줄 알았지요?》 하고는 씩- 내앞을 지나갔다.

나는 어이없어 허허 웃고는 그가 놓고간 짐을 들러메고 따라섰다.

잃어버릴가 놓쳐버릴가 황황히…

초저녁의 여문 별이 빠끔히 머리를 내밀고 웃음속에 우리를 바라보고있었다.

땅과 함께 무엇인가 속삭이며…

그 속삭임속에 농장의 또 하루가 흘러가고있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더욱 풍성해질 사회주의농촌의 래일을 약속하며…